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성향 차이

## Differ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 Adolescents

이만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Man-Je Lee(man2@kocca.kr)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경상, 전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57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보다 감성지능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서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중독된 청소년들보다 독립적-책임감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반면 경쟁적-공격적,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인터넷 중독 | 감성지능 | 대인관계성향 |

###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in Korean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pon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re found according to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Specifically, the internet addicted group have lower scores than the non-addicted group in various aspects such as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control, and emotional application. Second, the internet addicted group show a tendency to have less independent-responsible, sympathetic-receptive, and sociable-friendly disposition than its counterparts in the resp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rd, the internet addicted group are disposed to have more competitive-aggressive, and defiant-distrustful disposition than the respondents in the other group.

■ keyword : | Internet Addiction | Emotional Intelligence |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

##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업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좀 더 쉽게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다[1]. 특히 청소년

들은 학교 내의 대인관계 부적응, 성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경직된 학교생활 등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 인터넷을 선택하고 몰입하게 된다[2]. 더욱이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고,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욕구를 충족시키며, 여러 가지 청소년기의 좌절감과 공격적 충동을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3].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에 이르러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 이처럼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중독적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거의 부정적이어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혼란, 대인관계 부적응, 학업이나 직무수행 소홀,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동, 비행이나 범죄행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폐해를 찾아볼 수 있다[5].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한 청소년은 친밀감이 결핍되어 있고 좌절내성이 약하며 충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이고 학교에 결석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냈다[6]. 이들 청소년들은 심리적 불안정감, 우울한 기분 등을 흔히 경험하고 사회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친구관계의 약화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여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7].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8]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각자의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능과 태도를 키우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Sullivan은 청소년기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는 향후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행동을 촉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9].

또한 청소년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

루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감성지능이 필요하다[10]. 감성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쾌활하여 사회적으로 격정이나 두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정서표현을 적절히 하여 자신과 타인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특성이 있다[11].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융통성, 독창성, 공감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할 가능성이 높았다[12].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와 감성지능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인터넷 중독은 대면적인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은 폐해를 가져다 주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독으로 인한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의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몇몇 연구가 행해졌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서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있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갖기 위해 경상, 전라, 서울, 경기 지역 청소년 57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터넷중독

인터넷 중독 장애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Goldberg는 인터넷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지각 장애, 주의력 장애, 사고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정신운동성 행동 장애, 그리고 대인관계 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하였다[13]. Young은 인터넷 이용자가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인터넷에 대한 관여도 증가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 이용을 중단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중독이라고 하였다. 즉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확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터넷에 지나치게 접속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상황을 말한다[14].

인터넷 중독 진단기준과 관련하여 Griffiths는 집착, 긍정적 감정, 내성, 금단, 일상생활의 지장을 제시하였다[5].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국형 인터넷 자기진단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요인으로 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이 일반적인 정신병리적 성향과 함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해지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일탈행동이 유발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성과 금단이 출현하며, 이러한 상태가 심해질수록 최종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과 실생활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구분 장애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15].

그동안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 일수록 심리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16] 충동적이며 [17] 공격성이 강하고 [2] 자기통제력이 약한 성향을 보였다 [16]. 더욱이 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18]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19]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20].

## 2. 감성지능

감성지능을 학문적으로 처음 연구한 Salovey & Mayer는 사회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 감정의 차이를 구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1]. Goleman은 감성지능을 자신을 동기화시키고, 좌절을 이겨내며,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

을 지연시키며,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규율할 수 있고, 타인을 공감하고, 희망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정서의 인식, 정서의 통제,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관계조절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10].

문용린은 Salovey & Mayer의 감성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감성지능의 구성요소로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정서인식(emotional awareness)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내적 감정상태의 인식을 통해서만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정서인식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약점과 장점을 인지하는 자아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정서표현(emotional expression)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이라고도 한다. 셋째, 감정이입(empathy)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여 그 사람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자신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알아차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조절(emotional control)은 불쾌한 기분을 참고 유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서활용(emotional application)은 자기동기화라고 하기도 하며 자신의 정서 또는 기분을 인식하거나 조절하는데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창조적인 사고, 항상적인 끈기, 낙관적인 인식, 자신감, 패배를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 등이 해당된다. 즉 우선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인식한 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해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줄 아는 능력이다 [22][2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성지능과 TV 시청시간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 시사교양, 토론, 다큐멘터리 장르나 내용 선호도는 감성지능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쇼나 코미디 같은 오락 장르나 내용 선호는 감성지능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또한 감성지능과 인터넷게임 중독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감성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5][26]. 인터넷 중독과 감성지능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도 감정조절이 안될수록, 긍정성과 낙관성이 부족할수록, 감정이입이 안될수록, 전체 감성지수가 낮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을 보였다[27].

### 3.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란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다[28]. Heider는 대인관계란 소수인, 일반적으로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며 타인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하며, 타인이 무슨 행위 또는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고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대인관계의 국면이라고 하였다[29]. 결국 대인관계 성향이란 개인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안범희는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인관계성향 모형을 3가지 영역 안에 7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역할성향은 지배적-우월적(복종적-자기비하적), 독립적-책임감적(의존적-무책임감적)으로, 사회관계성향은 동정적-수용적(비동정적-거부적), 사교적-우호적(비사교적-비우호적)으로, 표현성향은 경쟁적-공격적(비경쟁적-비공격적), 과시적-자기도취적(자기폐쇄적-자기의식적), 반항적-불신적(타협적-신뢰적) 성향 등의 7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30]. 구체적으로 7가지 성향의 특성을 설명해 보면 [표 1]과 같다.

인터넷 중독과 같이 병리적 현상들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로 인터넷 중독자들이 비중독자들보다 대인관계

예민성이 더 높고[31],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32] 어머니와 친구 등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3].

표 1. 대인관계성향의 7영역별 하위요인과 내용

영역	하위요인	내용
역할 성향	지배적	영향력 행사, 지시, 충고, 복종요구, 숭선, 자기주장, 의지 강함
	우월적	독단, 자만, 권위적, 자기확신
	독립적	자기판단적, 독자적 수행, 자립, 자기방식대로 일처리, 스스로 계획 잘세움
	책임감적	책임의식 철저, 숭선수범적, 과업지향적, 자기권리 주장
사회관계 성향	동정적	허용적, 관용적, 민감, 약자보호적, 친절
	수용적	타인의 장점 존중, 성실성의, 포용력
	사교적	개방적, 활동적, 친밀, 소속감, 밀착, 어울리기 좋아함
	우호적	낙천적, 온화, 친절, 친애적, 동조적, 협조적, 사회성
표현 성향	경쟁적	간섭싫어함, 자기싫어함, 비협동적,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
	공격적	비판적, 논쟁적, 권위에 반항적, 도전적, 부정적, 다툼이 많음
	과시적	자기노출적, 과장적, 자기지랑, 흥분잘함, 주목받으려 노력, 칭찬이나 인정받길 원함
	자기도취	도취적, 지나치게 낙천적, 즉흥적
	반항적	불명, 불인, 권위에 도전, 배타적 반대
	불신적	의심, 경계적, 왜곡, 고립적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동정적-수용적 성향과 사교적-우호적 성향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학생들보다 인터넷게임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34]. 김옥순과 홍혜영의 연구에서 통신중독자들은 지배적-우월적, 과시적-자기도취적 성향과 불신적이고 반항적인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인터넷 중독과 대인관계성향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사교-우호적 성향, 반항-불신적 성향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인관계 내에서 독단적 역할성향을 나타내고 불신적, 반항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37].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도취적, 사교-우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시-자기도취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38]. 또한 인터넷 중독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지배-우월적, 경쟁-공격적, 과시-자기도취적, 반항-불신적 성향이 높고 사교-우호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39].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 2.1 인터넷 중독

인터넷중독 척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15]. 이 도구는 일상생활 장애(9문항), 현실구분 장애(3문항), 긍정적 기대(6문항), 금단(6문항),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5문항), 일탈행동(6문항), 내성(5문항)의 총 40개의 문항으로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문항 점수는 160점으로 총점 108점 이상이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95~107점 사이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앞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는 .97로 나타났다.

##### 2.2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문용린이 제작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용 정서지능 자기보고질문지를 사용하였다[23].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등 5개의 하위영역을 가지며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는 .75로 나타났다.

#### 2.3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성향은 안범희가 제작한 척도를 아동과 청소년에 맞게 변형한 신만철의 척도를 사용하였다[40]. 이 척도는 7개 차원간 5문항씩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계수는 .82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경상, 전라지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실시되었다. 총 593부가 수거되었으나 이중 응답이 부실한 21부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572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된 설문은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응답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변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과 감성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중독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Schaffe 사후 검정방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63.8%(365명), 여자가 36.2%(207명)의 비율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45.1%(258명), 고등학생이 54.9%(314명)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집단별 분포를 보면 일반사용자군이 61.5(352명),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28.0%(160명), 고위험 사용자군이 10.5%(60명)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및 해석

인터넷 중독과 감성지능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

해 <연구문제 1>에서는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일반 사용자군보다 대체로 감성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성지능 요소 중 정서인식에서 일반 사용자군이 평균 3.60으로 나타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3.50,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3.39보다 높게 나타났다.(F=4.413, p<.01). 특히 사후검증을 통해 밝혀졌듯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과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냈다(평균차=.207, p<.01). 정서표현에서는 일반사용자군이 평균 3.17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3.03), 고위험 사용자군(M=2.86)의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F=4.522, p<.01). 세집단간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일반사용자군과 인터넷에 중독된 고위험 사용자군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여주었다(평균차=.307, p<.05).

정서조절은 인터넷 일반사용자군(M=3.32)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3.13), 고위험 사용자군(M=2.96)의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F=8.855, p<.01). 정서조절은 정서인식, 정서표현과는 달리 인터넷의 비중독자인 일반사용자군과 인터넷 중독자인 고위험 사용자군의 청소년들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지만(평균차=.363, p<.01) 일반사용자군과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많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청소년들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평균차=.190, p<.05). 정서활용 역시 인터넷 일반사용자군의 평균이 3.14로 나타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3.02,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2.83보다 높게 나타났다(F=5.379, p<.01).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일반사용자군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된 고위험 사용자군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평균차=.312, p<.01).

그러나 감성지능의 5개 요인 중에서 감정이입에서만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인터넷 일반사용자군(M=3.04)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3.03)의 감정이입 능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M=2.88)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 측면에서 감성지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2.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 차이

감성지능	인터넷중독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사후검증
정서인식	일반사용자군	352	3.60	.749	4.413	.01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50	.658			
	고위험 사용자군	60	3.39	.843			
정서표현	일반사용자군	352	3.17	.863	4.522	.01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03	.672			
	고위험 사용자군	60	2.86	.766			
감정이입	일반사용자군	352	3.04	.775	1.191	.31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03	.565			
	고위험 사용자군	60	2.88	.741			
정서조절	일반사용자군	352	3.32	.740	8.855	.01	1)2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13	.578			
	고위험 사용자군	60	2.96	.827			
정서활용	일반사용자군	352	3.14	.708	5.379	.01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03	.590			
	고위험 사용자군	60	2.83	.970			

1=일반사용자군, 2=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고위험 사용자군

##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및 해석

인터넷 중독과 대인관계성향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 2>에서는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역할차원 중 독립적-책임감적 성향에서 일반사용자군이 평균 3.18로 나타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3.00,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2.94보다 높게 나타났다.(F=10.622, p<.01). 세집단간의 독립적-책임감적 성향은 사후검증을 통해 드러났듯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평균차=.242, p<.01) 잠재적으로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평균차=.182, p<.01).

사회관계 차원 중 동정적-수용적 성향은 일반사용자군이 평균 3.22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3.11), 고위험 사용자군(M=3.00)의 청소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F=3.631, p<.05). 세집단간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일반사용자군과 인터넷에 중독된 고위험 사용자군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여주었다(평균차=.229, p<.05). 사교적-우호적 성향 역시 인터넷 일반사용자군(M=3.41)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3.20), 고위험 사용자군(M=3.18)의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F=8.855, p<.01). 사교적-우호적 성향은 다른 대인관계성향과는 달리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이 비슷하게 나타나 인터넷 비중독자 청소년이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과 중독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 비중독자인 일반사용자군과 인터넷 중독자인 고위험 사용자군과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지만(평균차=.225, p<.05) 일반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평균차=.201, p<.01). 따라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보다 독립적-책임감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대인관계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성향의 표현차원을 살펴보면 경쟁적-공격적 성향은 인터넷 일반사용자군의 평균이 3.15로 나타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3.19,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3.40보다 낮게 나타났다(F=3.757, p<.05). 집단간의 차이는 인터넷에 중독된 고위험 사용자군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일반사용자군의 청소년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다(평균차=.245, p<.05). 반항적-불신적 성향은 인터넷 일반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의 평균이 거의 비슷하게 각각 3.27, 3.28로 나타나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 3.57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세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간에도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평균차=.288, p<.01)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간에도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평균차=.283, p<.01). 인터넷 중독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쟁적-공격적,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성향의 5개 요인 중 지배적-우월적 역할성향과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에서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사용자군(M=2.85)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2.87)의 지배적-우월적 역할성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M=2.92)이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과시적-자기도취적 표현성향에서도 인터넷 일반사용자군(M=3.02)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M=3.03)의 평균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반면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평균은 3.16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표 3. 인터넷중독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차이

대인관계성향	인터넷중독 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사후검정
지배-우월	일반사용자군	352	2.85	.552	.329	.72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2.87	.444			
	고위험 사용자군	60	2.92	.628			
독립-책임감	일반사용자군	352	3.18	.525	10.62	.01	1)2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00	.433			
	고위험 사용자군	60	2.94	.577			
동정-수용	일반사용자군	352	3.22	.581	3.631	.05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11	.469			
	고위험 사용자군	60	3.00	.808			
사교-우호	일반사용자군	352	3.41	.566	9.363	.01	1)2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20	.484			
	고위험 사용자군	60	3.18	.692			
경쟁-공격	일반사용자군	352	3.15	.619	3.757	.05	1)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19	.540			
	고위험 사용자군	60	3.40	.644			
과사-자기도취	일반사용자군	352	3.02	.609	1.458	.2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03	.514			
	고위험 사용자군	60	3.16	.668			
반항-불신	일반사용자군	352	3.27	.579	7.208	.01	1)3 2)3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0	3.28	.480			
	고위험 사용자군	60	3.56	.574			

1=일반사용자군, 2=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고위험 사용자군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잘 알아차리고 못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표현하지 못하며, 불쾌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을 잘 조절, 관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사고와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해한 후 실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감성지능이 낮을수록 TV 시청시간이 늘어나고 쇼나 코미디와 같은 오락 장르를 선호하는 반면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뉴스, 시사교양, 토론, 다큐멘터리와 같은 정보나 교양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40]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인터넷 중독과 비슷한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보이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타집단에 비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고[41]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시설 청소년들이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42]와도 일맥상통한다.

인터넷게임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보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감성지능이 낮게 나타나고[25][26] 감정조절이 안될수록, 긍정성과 낙관성이 부족할수록, 감정이입이 안될수록, 전체 감성지수가 낮을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나타난 기존의 연구[27]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인터넷과 게임 중독자일수록 감정이입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체

계적인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대인관계에서 독립적-책임감적 역할성향,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사회관계성향이 낮은 반면 경쟁적-공격적,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보다 대인관계에서 독립적-책임감적 역할성향과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사회관계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반면 경쟁적-공격적, 반항적-불신적 표현성향은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신이 당면에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립적, 독자적으로 처리하거나 술선 수범하여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친절하고 관용적으로 성심성의껏 타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포용하기 보다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특정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적극적, 낙천적, 협조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과는 친밀하고 개방적으로 지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인관계에서 타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보다는 타인을 지나치게 경쟁자로 인식하여 지기 싫어하며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고 불안해하며 불평과 의심이 많아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인터넷 중독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지배-우월적, 과시-자기도취적, 경쟁-공격적, 반항-불신적 성향은 높고 사교-우호적 성향은 낮은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36-39]와 인터넷 게임과 통신에 중독된 사람들이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성향은 낮고 지배적-우월적, 과시적-자기도취적, 반항적-불신적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결과[34][35]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대인관계성향 중 독립적-책임감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성향은 대인관계의 적절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반항적-불신적, 지배적-우월적, 경쟁적-공격적 성향은 대인관계의 적절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힌 안범희의 연구를 의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30]. 즉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대인관계의 적절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인터넷 중독 집단의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형성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중독 집단은 비중독자들보다 대인관계에 예민하고 [31],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32], 어머니나 친구와 같은 가장 중요한 사람과도 잘 지내지 못해 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3].

이처럼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에게 감성지능을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을 갖게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감성지능과 바람직한 대인관계성향은 한 사람의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실제로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은 학업성취[43][44], 사회적 유능성[21][45], 갈등해결[46], 스트레스 대처[47], 사회적 유능성[4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감성지능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대인관계성향을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닌 학문적, 실용적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라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정서적 특성간의 관계에 집중되어 온 연구를 실용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역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덜 중독되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을 높이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성향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에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가외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수준 뿐만 아니라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척도들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되긴 하였지만 그 시기가 너무 오래되었다. 더욱이 감성지능과 대인관계성향은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발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상황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중독에 따른 감정이입의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결과도 측정 척도의 정교함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척도는 개별적으로 10-20개 정도 문항의 자기보고 질문지가 많은데 이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을 감성지능의 한 하위차원으로 설정하여 5개 문항만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척도를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타당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광훈, 유선실, *인터넷 미디어 이용실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2] 홍승표, 이희주, "인터넷 중독에 따른 초등학생의 비사회 행동 연구", *아동학회지*, 제28권, 제1호, pp.205-216, 2007.  
 [3] J. Suler, *Internet addiction: In a nutshell*. <http://www.rider.edu/users/suler/psyber/healthyinternet.html>, 2000.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5] M. D. Griffiths, "Psychology of Computer Use: Some Comments on 'Addicted Use of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Vol.77, pp.461-473, 1996.  
 [6] F. Iftene and N. Roberts, "Internet Use in

- Adolescents: Hobby or Avoidanc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49, No.11, pp.789-790, 2004.
- [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상담전략*,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 [8] 정남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의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1호, pp.37-51, 2004.
- [9] 김명귀, 심혜숙, 채준호, "Jung의 심리경향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분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7권, 제1호, pp.39-61, 2000.
- [10]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황태호 역, 감성지능, 비진코리아, 1995.
- [11] S. Pollak, D. Cicchetti, and R. Klorman, "Stress, Memory, and Emotion," Development and Psychology, Vol.10, pp.811-828, 1998.
- [12] 윤현석,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13] I. Goldberg,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cmhc.com>, 1996.
- [14] K. S. Young. *Caught in the Net :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tc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John Wiley & Sons, Inc, 1998.
- [1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 [16] 이혜린,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우울/불안의 매개적 역", 아동학회지, 제30권, 제2호, pp.97-112, 2009.
- [17] 이수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5권, 제2호, pp.175-192, 2008.
- [18] 서미아. "일개 중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또래애착 정도, 학교생활 대처와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5-13, 2007.
- [19] 송충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영향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법교육연구, 제3권, 제1호, pp.103-133, 2008.
- [20] 조준범, 송아영, 이순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와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6권, pp.73-103, 2007.
- [21] J. D. Mayer and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No.3, pp.185-211, 1990.
- [22] 문용린,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서울대 교육연구소*, 1996.
- [23] 문용린,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글이랑, 1997.
- [24] 전환성, "감성지능과 매체 이용행태간의 관계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2권, 제4호, pp.44-72, 2004.
- [25] 안혜영,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감성지능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6] 정경순,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아동의 컴퓨터게임사용 특성, 대인관계성향, 정서지능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7] 김병성, 홍세중, 최현림, 원장원, "초등 및 중학생의 인터넷중독 실태와 관련요인", 경의의학, 제24권, 제1호. pp.30-40, 2008.
- [28] L. M. Horowitz, K. D. Locke, M. B. Morse, S. V. Waikar, D. C. Dryer, and E. Tarnow, "Self-derogations and the Interpersonal Theory," Journal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Vol.61, No.1, pp.68-79, 1991.
- [29] 안범희, *대인관계이론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9.
- [30] 안범희,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5.

- [31] 서승연, *일상적 스트레스 몰두성향, 사회적 지지와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2] 강석기, 한상훈, “청소년 과잉행동과 대인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전충남지역 대학생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1호, pp.111-128, 2005.
- [33] 양돈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481-500, 2003.
- [34] 이현주, “초등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하루인터넷게임시간 및 인터넷 게임중독”, *교육방법연구*, 제18권, 제2호, pp.119-137, 2006.
- [35] 김옥순, 홍혜영, *정보화 사회와 청소년-통신중독증*, 한국청소년 문화연구소, 1998.
- [36] K. S. Young and R. C. Rog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1, pp.25-28, 1998.
- [37] 이경은, 박경,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및 대인관계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제8권, 제1호, pp.31-48, 2008.
- [38] 김선연, 조규락, 황재호, “고등학생의 대인관계성향에 의한 인터넷 중독: 경상북도 포항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4호, pp.39-57, 2007.
- [39] 유지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익명적 및 중독적 사용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0] 신만철, *아동기의 열등감 수준과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41] 강승호, 민미자,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과 주도하는 학생 및 일반학생의 성격특성과 감성지능 비교연구”, *교육학연구*, 제40권, 제2호, pp.143-168, 2002.
- [42] 석주영, 안옥희, 박인전,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 및 유머감각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37-250, 2004.
- [43] 김순혜,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1권, 제2호, pp.21-44, 1997.
- [44] 박상범, 윤정륜,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감성지능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4호, pp.199-216, 2004.
- [45] 김순혜, 김정원,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2호, pp.83-97, 2004.
- [46] 이민영, 김광웅, 조유진, “아동이 지각한 부모행동특성특성과 정서지능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아동학회지*, 제27권, 제6호, pp.149-165, 2006.
- [47] 탁진국, “성별과 직급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와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pp.307-324, 2007.
- [48] 전정미, 유미숙,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7권, 제3호, pp.225-238, 2006.

저 자 소 개

이 만 제 (Man-Je Lee)

정희원



- 1989년 2월 :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학사)
  - 1992년 8월 :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신문방송학석사)
  - 1997년 8월 :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신문방송학박사)
  - 2001년 8월 ~ 2002년 7월 : Missouri University 교환학자
  - 1992년 ~ 현재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웹 멀티미디어, 방송영상, 문화정책, 커뮤니케이션